

우리는 하나입니다!

송조돈목, 단합하여 명문 청주한문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나갑시다!



추태 중앙총친회장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100만 종친일가여 러분!

2020년대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요!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글로벌 양대국의 첨예한 무역전쟁, 이해당사국간의 외교적인 대립 등 대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이념대립의 고조,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대형 참사, 이상기후와 강력한 태풍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친일가분들께서는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중앙총친회와 종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으로 종사를 원만히 수행함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금년은 중앙총친회장에 취임하여 3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간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송조돈목하고 하나로 대화합하여 성원해 주시는 100만 종친일가분들과 더불어 청주한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결실의 해가 되도록 더욱 힘써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 단결을 통해 종사기반의 내실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서로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체계 구축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친회 본연에 맞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우선할 수 있도록 종친일가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고견 수렴을 통해 종사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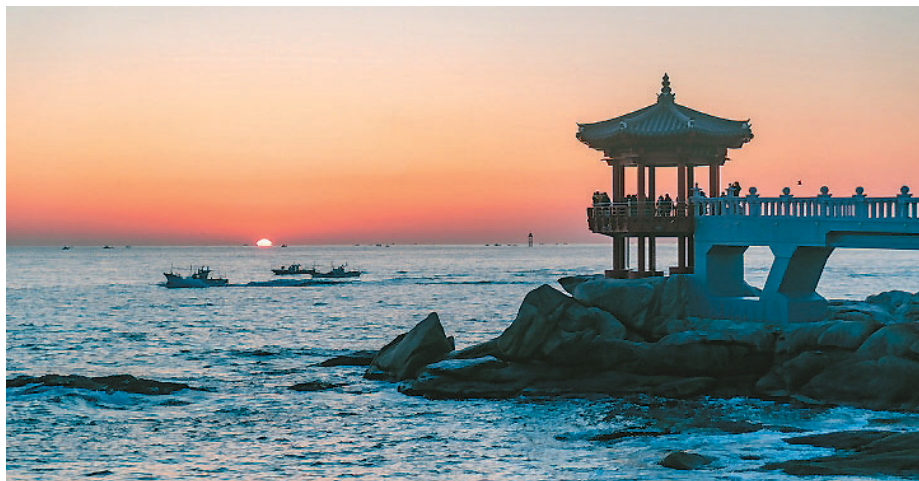
둘째, 익산 대왕릉·왕비릉과 유물유적의 수호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익산 대왕릉은 우리 청주한문의 원류(源流)이신 마한 태조 무강왕릉입니다.

정사기록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양식 있는 많은 사학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쌍릉 발굴조사와 짜맞추기식으로 왜곡 호도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대응과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이어나갈 것이며, 특별히 전문 사학자를 엄선하여 연구용역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학술적 학문적인 연구논리를 바탕으로 강력 대응하여 우리 선조의 유적을 수호하고 뿌리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감은 물론 진실 앞에 왜곡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조묘역과 세일재, 무농정과 방정, 제단비 등 선조의 유물 유적을 정화 보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청한각의 지방문화재 선정과 관리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세일재와 관리사는 여러해가 경과되어 전반적인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각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중앙회 조직의 정비와 활성화를



속초 영금정의 일출(제공 한국관광공사)

위한 노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앙총친회는 종파총친회의 연합체입니다. 종파총친회와 행정구역상의 광역시도총친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파문중과 광역시도 조직이 유명무실하거나 조직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직을 재건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특히 우리 종사를 이끌어갈 청장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내실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문중과 예빈운공파 문중의 선계계보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 입니다.

넷째, 장학사업 기금확충과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주한문의 후손을 훌륭한 미래의 인재이자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하는 장학사업 활성화는 중요한 종사의 책무이자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거대 장학재단으로의 정착과 함께 회관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명실상부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게 비상(飛上) 도약하는 해로 결실을 맺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종친여러분!

금년에도 국내경기는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예견되었듯이 결코 순탄치만은 아닐듯합니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으로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자년은 흰색 쥐를 의미하는 쥐띠의 해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운세도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합시다. 송조돈목과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 되고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훌륭한 선조님의 고귀한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에 물려주고 명문거족 청주한문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 나가십시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한씨중앙총친회 회장 한추태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갑수 명예회장
- 현수 상임고문
- 기호 상임고문
- 추태 중앙회장
- 총파회장
- 철호 삼재관리위원장
- 규동 사숙공추모회장
- 태교 평간공봉찬회장

- 길수 서원군파회장
- 성우 문경공파회장
- 기찬 문월공파회장
- 동수 문간공파회장
- 선교 충성공파회장
- 용진 이양공파회장
- 진수 검참공파회장
- 석희 문양공파회장

- 석구 문정공파회장
- 상량 참판공파회장
- 유광 찬성공파회장
- 광구 이랑공파회장
- 재국 판사공파회장
- 동석 정당공파회장
- 치용 양해공파회장
- 기일 현령공파회장

- 덕규 공안공파회장
- 만교 장도공파회장
- 상기 참의공파회장
- 양수 절경공파회장
- 규백 회양공파회장
- 석인 충정공파회장
- 동석 전교공파회장
- 형동 직사관공파회장

- 임개 문계공파회장
- 광역시도회장
- 상락 서울시회장
- 동경 부산시회장
- 태락 대구경북회장
- 천식 인천시회장
- 창화 광주시회장
- 갑수 대전시회장

- 일수 울산시회장
- 광전 경기도회장
- 명수 강원도회장
- 장훈 충북도회장
- 격동 충남도회장
- 영교 전북도회장
- 만준 경남도회장
- 정식 제주도회장

- 감사
선교·승남 감사
전담부회장
추태 총정공파회장
찬규 총의공파회장
상우 세마공(논산)
인석 유물유적전담
석례 여성위원장

- 청한장학회
우동 이사장
추태 광천공장학회
효동 세마공장학회
광 시외공장학회
연동 판관공장학회
길수 국산공장학회
강 감산공장학회
태수 성호공장학회
상옥 청암공장학회
규백 회양공장학회

- 태락 대구경북장학회
춘희 총정공장학회
명수 교위공장학회
상필 청파공장학회
장훈 서범공장학회
복석 낙안공장학회
준석 이원공장학회
동경 부산시정학회
천식 한인장학회
상근 회정공장학회
택수 상언공장학회
선교 충성공장학회

중앙회 2019년도 연말이사회 개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가결

세일재 및 관리사 보수, 무강왕릉의 역사적 학술적 고찰을 위한 자문 및 연구조사 위탁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12월 18일 중앙총친회 회의실에서 갑수명예 회장, 추태회장을 비롯 선교감사와 연동, 동수, 태락, 상기부회장 등 위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연말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 및 국민의례와 참석위원 소개에 이어 주요성과 및 종사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한 후 의안상정을 통해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전년대비 92백만원이 증액된 337백만원을 심의 승인하였다.

세일재 및 관리사 지붕보수 1억원, 인물록 및 인명부 발간사업비 5천만원,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된 뿌리공원조형물 개수비용 5천만원과 경상 재원의 조달 및 경비는 현실성

을 고려 최소화하여 감액하였다.

또한 세일재 및 관리사 보수비용과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은 종파문중과 광역시도 회장단을 중심으로 전종원의 참여와 성원에 적극 협조하고 한옥의 기와지붕과 목재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세일재 경내 조경수목의 벌채작업 시행여부는 중앙회 집행부에 위임 결의하였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정 감안 후 2020년도 정기총회에 부의할 것임을 공지하고, 종파문중과 지역총친회는 중앙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총회안건에 반영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장단에 감사를 전하고 무강왕릉의 수호보전, 세일재 및 관리사 지붕 보수추진, 장학사업의 진행



연말이사회에서 추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과 등 주요종사 추진현황을 설명한 후 경제적인 상황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 시 큰 비용 부담으로 추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종파문중 및 지역총친회와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원할 수 있도록 협조와 홍보, 독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를 이끌어가는 추태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임원분들과 전국의 종원분들께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종사운영에 적극 성원을 보내고 특별히 장학재단 운영 등 중요한 종사는 철저한 제도적인 준비와 대처로 향후 법률적인 문제 등 분쟁소지가 없도록 힘을 모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길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원군파총친회 이사회 개최

길수회장,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 어려움을 극복하면 결실이 있는바 힘을 모아 종사를 이끌어 나가고 독려

서원군파총친회(회장 길수)는 지난 1월 10일 길수회장, 상기, 규백, 만교회장을 비롯 위원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3가 소재 한일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보고와 서원사 사적비 수립에 따른 경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7백만원이 증액된 3,220만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이어 금년도 서원군부근의 세향일이 선고이신 사숙공부근의 세향일과 겹치는 관계로 하루를 미루어 양력 4월 6일(월)로 정하였으며 서원사 사적비문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고 비문 전면은 택수(전)양평군수가 쓴 예서체로 확정하는 한편 제작

업체도 선정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원사를 건립하고 조상을 모시는 행사를 잘해오고 있음은 훌륭한 선조님의 은혜이자 송조돈목 정신이 함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우리문중에도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염원의 마음을 담아 봄이 오는 길목이라는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역회공안공파대표, 문수교수, 택수전양 평군수의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만교회장이 무강왕릉에 대한 현황 설명이 있었다.

사적비 수립 경비는 17개종파에 균등 배분하였고 갑수장관과 길수회장이 헌성금을 기탁하였으며 2020년도 서원사 세향일에 제막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강왕릉수호기금 헌성금(2020.1.20현재)

이름	금액(원)
추태 중앙회장	10,000,000
충북도총친회(회장 장훈)	2,000,000
대구경북총친회(회장 태락)	1,500,000
대전총친회(회장 갑수)	1,000,000
부산시총친회(회장 동경)	1,000,000
총의공파중중(회장 찬규)	1,000,000
한삼량(청한산악회 회장)	1,000,000
회양공파중중(회장규백)	1,0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문양공파중중(회장 석희)	600,000
문간공파중중(회장 동수)	500,000
절도공경산중중(효근)	500,000
참판공파중중(회장 상량)	500,000

이름	금액(원)
현령공파중중(회장 기일)	500,000
인천시총친회(회장 천식)	300,000
참의공파안산중중	300,000
청한예학회	300,000
판관공파중중(회장 연동)	300,000
팔봉총친회(회장 광운)	200,000
강, 중수(참의공파안산중중)	100,000
참의공파안산중중(강)	100,000
강락 자문위원(대구 서구)	100,000
만교(장도공파회장)	100,000
삼재관리위원회(회장 철호)	100,000
준석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창희(참판공파)	100,000
합 계	24,200,000

무강왕릉 수호보전 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모금 계좌 안내 (공동 운영)

- ◆ 국민은행 009902-04-323878 예금주 한추태
- ◆ 국민은행 624201-04-487233 예금주 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

쌍릉 역사왜곡 즉각 중지, 익산시청 앞 규탄 집회

지난 1월 9일 중앙종친회(회장 추태) 및 무강왕릉수호범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태락)주관하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지역 등 전국 각지의 청주한문 200여 종원들은 오후 1시 익산시청 정문 앞에 집결, 선도 차량의 마이크방송과 “익산시는 무왕릉 지정을 취소하라” “쌍릉 역사왜곡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 “익산 대왕릉은 마한태조 무강왕릉이다.” “익산시는 청주한씨의 땅을 되돌려 달라”는 등의 현수막, 피켓 등을 앞세우고 무강왕릉수호범대책추진위원회 태락위원장의 선도 하에 익산시의 쌍릉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시위와 집회를 개최하였다.



태락위원장이 시위를 선도하고 있다.

익산 대왕릉은 마한 태조 무강왕릉이다. 자명한 역사적 진실! 익산시는 각성 사죄하고 무왕릉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중앙회추대장을 비롯해 태락회장, 인식회장, 영교회장, 갑수회장, 기천회장 등 다수의 항의와 규탄발언을 통해 익산 대왕릉은 정사기록과 묘적기록부, 익산지역의 유물, 유적이 증명하는 명백한 청주한씨 선조인 마한태조 무강왕릉임을 강조하고, 백제 무왕릉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역사왜곡 조장하는 익산시는 쌍릉 역사 짜맞추기를 즉시 중지하고 익산시장과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은 청주한문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진실과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청주한씨로의 땅 반환 등의 요구사항을 거듭 주장하고 항의하였으며 참석한 종원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동조를 보냈다.

화연구소가 주축이 돼 대왕릉을 백제 무왕릉으로, 소왕릉을 선화공주 능으로 사실화하는데 후손은 경악·분개한다”고 성토했으며, “무왕의 익산 천도 역사기록은 없다.

태락위원장은 “쌍릉은 우리 시조인 마한태조 무강왕과 왕비릉임이 역사기록에 증명되는데도 근래 익산시와 마한백제문

또한 “서동설화 신라 진평왕 셋째 딸 선화공주는 신라 역사서에도 기록이 없고, 첫째 딸은 덕만공주로 선덕여왕이며, 둘

째 딸은 태조 무열왕 김춘추 어머니인 천명공주로 두 딸 기록밖에 없다” 익산시는 역사를 무시하고 소설 같은 삼국유사 서동설화를 사실화해 쌍릉을 무왕과 선화공주 능으로 왜곡·조작하는데 분통이 터진다”며 “우리 조상인 무강왕의 뿌리를 흔드는 엄청난 사실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은 백제왕도가 아닌 마한 왕도다. 익산시는 역사사실을 바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청주한씨 문중은 시조묘인 쌍릉 수호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종친회는 무강왕릉수호범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주한문의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와 선우씨, 기씨문중과도 긴밀히 협의 대처하는 한편 익산시와 관계 당국에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규탄구호를 제창하고 시위를 종료하였다.

익산 쌍릉은 무강왕과 그 왕비 릉이다



전북 영교 회장

기자조선 마지막 왕 41세 기준왕이 위만의 침공으로 남쪽으로 피하여 익산시 금마에 마한왕국을 세우고 무강왕이라 칭하니 BC194년이 었다. 위만에 패주한 것이 한이 되어 만주 벌판 북쪽 고토를 회복하고자 무력 강국을 다짐하며 스스로 무강왕이라 칭했을 것이다. 사후 무강왕은 지금의 석왕동 완만한 송림이 울창한 구릉지 이 자리에 묻히었으니 그 증거 자료라면

대 세속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기술한 역사이야기 책이다. 당시에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이야기가 학술적 증거도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떠돌던 인기 만점의 설화였던 것이다.

실제로 신라 26대 진평왕 슬하에는 27대 선덕여왕과 천명공주 뿐이었다. 선화공주는 학자에 따라서는 왕족 이찬의 딸이었거나 또 다른 설에는 지금의 익산 미륵사 뒷산인 용화산 아래 연못가에서 들이 산책할 때 미륵삼존을 만나 크게 감탄하여 재위 시에 그 자리에 미륵사를 지었다는 설에 의하면 그녀가 익산지역을 지배했던 토호의 딸이었다는 설도 전해지는 바 필자의 판단으로는 여기에 더 수긍이 간다.

그 당시 신라와 백제는 영토 분쟁이 심했던 국지전 상태였으며 그 당시 거리상으로 사랑 나누기에는 너무나 원거리였다. 또한 병사들이 오직 칼과 활을 쏘며 산 넘고 강 건너 걸어 다니던 봉건왕조 시대에는 그 지방 토호와 혼사 외척의 연을 맺어 그 지역을 토호인 외척에게 믿고 맡겨 다스리는 통치관행으로 보아 설득력

이 큰 것이다. 왕건은 38명의 후궁을 두어 그 외척들의 힘을 빌어 고려 한반도 전역을 호령하지 않았는가.

전술한바 여러 논설 중 어느 것도 학술적 증거는 없는 것이다. 무강왕은 2200여년 전 인물이요 백제 무왕은 1400여년 전 인물이니 인골 몇 조각이나 부장품 파편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간 일제시대와 익산시에서 용역을 받은 최모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도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무왕의 능으로 심증이 갈 뿐이다”고 하시었다니 어느 역사학자인들 그렇게 밖에 결론을 못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무왕과 선화공주 능으로 쉽게 판단하고 크게 선전하며 매년 익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랑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을 오도하여 혼란스럽게 하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익산이 마한의 왕도요, 그 시조 무강왕이 사후 수도 금마의 남쪽 산인 지금의 석왕동 산57 송림이 울창한 구릉지에 묻어달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됨은 보편적 상식이 아닐까? 반면에 무왕은 주

지하시의 바와 같이 백제 30대 왕으로 사후 당시 수도인 부여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재 부여 능산리에 왕능원이 있고 그곳에 이름모를 왕능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여 여행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중에 무왕과 그 왕비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왕조나 왕능은 당대의 수도 권역에 있다는 사실이다. 백제25대 무령왕능이 그 때 수도였던 공주에 있지요.

신라의 왕능들도 5능 3능 등을 비롯해 모두 경주에 있으며 고구려 왕능들도 당시 수도 만주땅 집안과 평양에 있으며 고려 또한 수도 개성에 왕건 능을 비롯하여 왕능들이 자리 잡아 당대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우리의 마지막 왕조인 조선조도 동구능을 비롯하여 왕능들이 수도 한양 서울 권역에 안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그러하니 무왕도 부여 왕능원에 누어 계시리라 추정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익산시는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여 무왕능이라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마한 왕국의 왕도요 그 시조 무강왕과 왕비능이 늘 푸른 송산에 자리 잡아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PR한다면 국민의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2020 경자년 정초에
<전북도회장 영교 기>

운영회비(11~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선교 부회장(충성공파회장)	1,000,000
춘희 부회장(충정공파회장)	1,000,000
명수 부회장(강원도회장)	500,000
천식 부회장(인천시회장)	500,000
태락 조직부회장(대구경북회장)	500,000
길우 겸임이사(문정공하장현공파회장)	200,000
두석 겸임이사(익산시회장)	200,000
병동 겸임이사(경주시회장)	200,000
석우 겸임이사(용인시회장)	200,000
임동 운영위원(경기 남양주시)	200,000
진덕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200,000
철희 운영위원(대전 서구)	200,000
성교 자문위원(대구 북구)	100,000
상복 겸임이사(충북 충주시)	100,000
기완 운영위원(경기 수원시)	100,000
래경 운영위원(충남 서산시)	100,000
순자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100,000
영식 운영위원(서울 서초구)	100,000
이덕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100,000
합 계	5,600,000

단체종보비(11~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대구경북총친회	300,000
고성군총친회(삼렬)	200,000
파주시총친회	200,000
목포시총친회	150,000
여주시총친회	100,000
익산시총친회	100,000
합 계	1,050,000

개인종보비(11~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금석(대전 중구)	100,000
문화((서울 강동구)	100,000
순구(서울 강남구)	100,000
두희(광주 남구)	50,000
철희(서울 강남구)	50,000
계봉(경기 화성시)	30,000
광호(서울 영등포구)	30,000
동순(전남 해남군)	30,000
영석(경남 합천군)	30,000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재문(경북 영천시)	30,000
태식(경기 안양시)	30,000
경수(서울 영등포구)	20,000
경희	20,000
규장(충남 천안시)	20,000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기준(경기 부천시)	20,000
기창 겸임이사(충남 당진시)	20,000
덕연(전남 나주시)	20,000
명교(서울 중구)	20,000
병호(서울 서초구)	20,000
상복(전북 익산시)	20,000
용섭(서울 성북구)	20,000
이덕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20,000
주용(경남 창원시)	20,000
풍성(경기 고양시)	20,000
수연(서울 금천구)	10,000
양석(충남 당진시)	10,000
연수(경기 안양시)	10,000
합 계	920,000

장학금 납부내역(11~12월) <small>단위:원</small>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404	갑수(대전 서구) 대전총친회	4,400,000	11,830,000
1982	문규(대전 서구) 대전총친회	1,000,000	1,600,000
2240	옥동(대전 유성구) 대전총친회	1,000,000	1,000,000
2101	철희(대전 서구) 대전총친회	500,000	1,000,000
2239	완봉(대전 대덕구) 대전총친회	500,000	500,000
1978	동욱(충남 계룡시) 대전총친회	350,000	1,040,000
2098	창남(인천단위장학회)	200,000	1,300,000
2103	창석(대전 서구) 대전총친회	200,000	600,000
2238	정근(L.A)	200,000	200,000
2050	천호(인천단위장학회)	100,000	220,000
2078	은석(인천단위장학회)	100,000	200,000
1172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330,000
2194	영석(경남 합천군)	30,000	9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800,000
1587	광호(서울 영등포구)	20,000	320,000
합 계	8,650,000		

중앙총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 · 헌성금 · 종보대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족보 · 수단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장학기금 출연 - 국민은행 009-25-0015-377	재단법인청한장학회

중앙총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총친회는 종사보감 등 책자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청한산악회 12월 정기산행

서울의 명소「관악산」으로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12월 22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 명산 관악산을 찾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송년산행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안양시, 과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로구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수도서울의 방벽으로 이용되어온 관악산(632m)은 교통과 경관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

전사면이 비교적 가파르고 암반이 많아 쉽지 않은 등산로이지만 이날 참석회원 전원이 들레길 산행을 완주하여 화합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분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즐겁게



안전산행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가운데 안전하고 보람된 산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종사운영에도 힘이 되는 산악회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함에 참석회원들은 큰 박수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수리산으로 신년산행

정기총회에서 상남회장 재선임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1월 12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리산을 찾아 신년산행을 실시하였다.

안양시와 군포시 및 안산시에 걸쳐 있는 높이 475m의 수리산은 산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여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修理寺)로 인해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손이 수도하여 수리산(修李山)이라고 했다는 설 등이 전해오며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

주위에 수암봉 등이 있으며 전사면이 비교적 완만하고 남북으로 능선이 길게 뻗어 있으며 형세가 복잡하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담배촌은 조선시대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신자들이 담배를 가꾸며 숨어 지내던 곳으로 지금은 순례지로 되어 있다.

산 남쪽에 반월저수지가 있고 수리산유



원지와 수리산 삼림욕장이 있으며 2009년 7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산행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의 결산(안) 승인에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현 상남회장을 재 선임하였다.

상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성원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화합돈독하는 모범적인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남산으로 송년산행을 다녀왔다.

여수총친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개최

여수총친회(회장 상숙)는 지난 11월 10일 여수소재 마띠유호텔 컨벤션홀에서 상숙회장과 흥수감사 등 종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행사를 개최하였다.

식전 문화공연에 이은 정기총회를 통해 결산(안)과 총친회 운영의 활성화와 도모를 위한 회칙개정(안)을 승인 가결하였다. 상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청주한문은 오랜 역사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 명문가문이다.

요즘 경제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이지만 조상이 계셨기에 내가 있음을 항상 가슴깊이 새기고 웃어뜯고 선



조를 섬김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하고 종사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회 후에는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상호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다. (총무 한흥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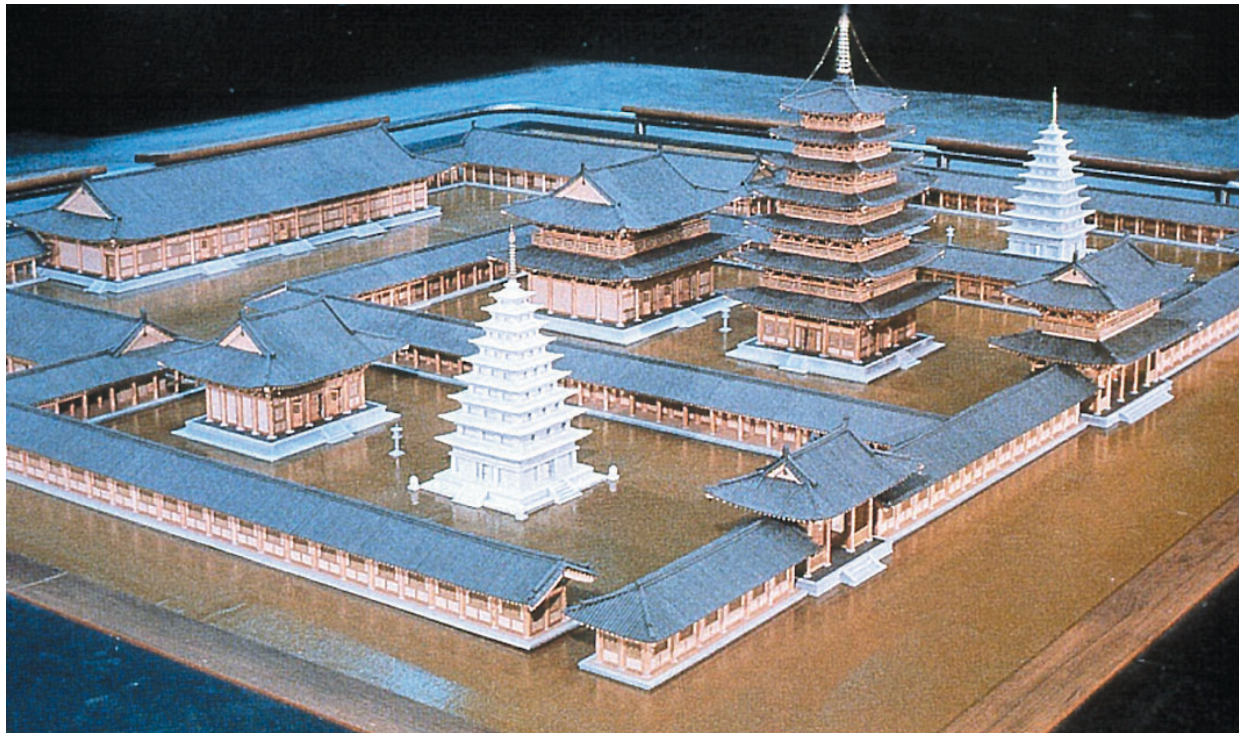
후마한의 기준이 익산의



안창범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본원사상 연구 만35년)

본 논고를 게재토록 송고해주신 안창범교수(사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주한문 종원분들과 문화·역사계 관계자 및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다만 지면 관계 상 논고의 차례 중 “서, 1. 문제의 제기 2. 백제 무왕이 부여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3. 익산의 금마와 후마한 무강왕의 익산 미륵사 창건”은 263호에 “4. 삼국유사 무왕 편의 모순 5. 옷점·결론·학풍”의 내용은 차기 264호에 나누어 게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마한의 도읍지 금마 용화산 남쪽기슭 한국 최대의 사찰지 미륵사 복원 모형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B.C.2세기 초 후마한 무강왕이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일연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전북 익산의 미륵사를 백제 제29세 무왕(A.D.600-642)이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착각하는 이유는 익산의 미륵사는 B.C.2세기 초에 창건되었고, 인도불교는 A.D.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우리나라에 전해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도·불·유교 3교일체의 고유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학계는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미륵사지의 석탑에 대한 해석에 착각이 생긴 것이다.

둘째 착각하는 이유는 후마한의 54국 가운데 百濟가 있었다. 후마한왕 箕準이 세운 나라가 百濟이다. 삼국시대 溫祚王이 세운 나라도 국호를 百濟라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착각하는 이유는 실증사학자들도 고고학과 더불어 文獻史學을 병행하여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고고학만을 연구하고, 문헌사학을 소홀히 함으로써 年代에 착각이 생겼다는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본 문제는 극히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학설과 신앙을 초월하여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냉정히 비판하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산 일명 용화산 남쪽 기슭에 약 2만 3천여 평에 달하는 광대한 넓이의 미륵사지(彌勒寺址)가 있다.

미륵사지는 사적(史蹟) 150호로서 이를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결과 삼원삼탑(三院三塔) 병치식(並置式)의 가람배치로써 고대 동양의 가람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는 특수한 형식의 거대한 가람이었음이 밝혀졌다. 현재에도 국보 제11호의 서원석탑(西院石塔)과 보물 제236호의 당간지주(幢竿支柱) 2기(二基)가 남아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과 학설이 있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북도 익산군 불우(佛宇)조에

는 “마한(馬韓)의 무강왕(武康王)과 선화부인(善花夫人)이 익산의 미륵사(彌勒寺)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그 때는 인도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이다. 그 후 유교·불교·도교가 들어오면서 의식구조가 유교·불교·도교 식으로 바꾸게 되고, 내 것을 부정하고 남의 것을 동경하는 사대주의 의식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내 나라의 고대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게 된다.

2) 『삼국유사』 권 제2, 기이(紀異) 제2, 무왕(武王) 편을 보면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과 선화부인이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하고, 주석(註釋)에서는 익산의 미륵사(彌勒寺)를 왕흥사(王興寺)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익산의 미륵사와 부여의 미륵사를 백제 무왕이 창건한 것 같이 애매모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3) 『삼국유사』 권 제3, 흥법(興法) 제3, 법왕금살(法王禁殺) 편에는 “법왕(法王)이 부여에 왕흥사(王興寺)를 처음 짓기 시작하고, 무왕(武王)이 35년에 걸쳐 왕흥사를 완성하니 이 절을 미륵사라” 하였다.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삼국시대 백제 29세 무왕이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주장한다. 『삼국유사』 무왕 편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2009년에 발견된 미륵사지의 석탑 내부의 유물이다. 곧 “백제왕후좌평(百濟王后佐平)”이다.

유물에 기록된 <百濟>가 고구려·신라·백제 등 삼국시대 온조왕(溫祚王)이 세운 백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삼국시대의 백제와 유물에 기록된 “백제왕후좌평(百濟王后佐平)”의 백제는 같은 나라인가? 다른 나라인가? 곧 백제(百濟)에 전백제(前百濟)가 있었고, 후백제(後百濟)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익산의 미륵사와 부여의 미륵사를 모두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이 창건했는가? 아니면, 다른 왕이 창건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무왕(武王)과 무강왕(武康王)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 부여는 미륵사(왕흥사)는 삼국시대 백제 무왕이 창

건했다는 것 2) 익산의 미륵사는 후마한의 무강왕(武康王)이 창건했다는 것 3) 『삼국유사』 무왕편의 모순을 밝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백제 무왕이 부여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우선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29세 무왕이 부여에 있는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문제부터 밝힌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28세 법왕(法王) 편에 “법왕 2년(600) 정월에 왕흥사(王興寺)를 처음 짓기 시작하고, 도승(度僧) 30명을 두었다.

이해 봄에 큰 한재(旱災)가 들므로 왕은 칠악사(漆岳寺)에 행차하여 비오기를 기도하였다. 5월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법왕(法王)이라 시호하였다.” 같은 책, 백제본기 제29세 무왕 편에는 무왕의 이름은 장(璋)으로 법왕의 아들인데 “35년(634) 2월에 왕흥사가 이룩되었는데 그 절을 물 가까이에 짓고, 채색은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미었다. 왕은 늘 배를 타고 절로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

3월에는 궁성(宮城)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여리에 물을 이끌어드리고 4방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으며 물 가운데 성(城)을 만드니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닮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법왕이 왕흥사를 착공하시고 돌아가시자, 무왕이 35년에 걸쳐 정성을 다하여 절을 짓고, 장엄하고 화려하게 완성하니 이 절을 방장선산 곧 미륵사(彌勒寺)라 한 것이다.

『삼국유사』 법왕금살(法王禁殺) 편을 보면, “백제 제28세 법왕(法王)의 이름은 선(宣)인데 효순(孝順)이라고 한다. 개황(開皇) 10년 기미(己未 599)에 즉위하였다.……이듬해 경신(庚申)에 30인의 도승(度僧)을 두고 그때 서울인 사비성(泗沘城: 지금의扶餘)에 왕흥사를 짓기 시작하자 승하(昇遐)하였다.

무왕(武王)이 왕위를 계승해서 아버지가 닦은 터를 여러 해를 지내서 완성하니, 그 절 이름도 역시 미륵사(彌勒寺)이다. 산을 등지고 물에 임했으며, 화목(花木)이 수려하여 사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갖추었다.

<7면에 이어>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6면에서 계속>

왕은 항상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절에 들어와서 그 경치가 장엄하고 고운 것을 구경하였다.

<고기(古記)에 실려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무왕은 바로 가난한 어머니가 못 속의 용(龍)과 관계하여 낳은 이로, 이럴 때 이름은 서동(薯童)으로서 즉위한 뒤에 시호(諡號)를 무왕(武王)이라 했다. 이 절은 처음 왕비와 함께 이룩한 것이다>

이상에 근거하면, 백제 제28세 법왕이 착공한 절은 왕흥사(王興寺)였으나, 그 다음 35년 뒤, 백제 제29세 무왕이 그 절을 완성하고, 절의 이름을 왕흥사(王興寺) 곧 미륵사(彌勒寺)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주(後註)에 기록하기를 어머니가 용(龍)과 관계하여 무왕을 낳고, 이름을 서동(薯童)이라 했으며, 즉위한 뒤에 무왕(武王)이라 했다. 미륵사는 왕비와 함께 이룩한 절이라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一然) 스님 역시 전백제(前百濟)와 후백제(後百濟)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도 망각하여 부여의 미륵사와 익산의 미륵사를 혼동하고, 아울러 무왕과 무강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익산의 금마와 후마한 무강왕의 익산 미륵사 창건

1) 익산의 금마는 후마한의 옛 수도였다.

그러면 전북 익산의 미륵사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창건되었는가? 우선 미륵사지가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는 과거 어떠한 곳이었던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금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에서 무강왕(武康王)은 조선왕 기준(箕準)이며,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뺏기고 남으로 옮기어 금마산(지금의 익산)에 (후)마한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삼국유사』마한 편에도 위지(魏志)를 인용하여 “위만이 조선을 치니 조선왕 준(準)이 궁인과 좌우의 가까운 신하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한(韓)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하였다”하고, 그밖에도 『고려사』지리지(地理志), 『후한서(後漢書)』한전(韓傳), 권람(權擘)의 『응제시주(應制詩註)』정다산(丁茶山)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 여러 사서에도 금마는 기준이 남천(南遷)한 곳이며, 후마한의 옛 도읍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믿겠는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다.

황수영(黃壽永) 박사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 혹은 수도 경영의 조건으로 궁성(宮城)·성곽(城郭)·왕릉(王陵)·사찰(寺刹) 등 4개의 조건을 들고 있다. 즉 이들 4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수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마가 이들 4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후마한의 수도였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마의 주변을 보면 미륵산 정상에는 기준(무강왕)이 쌓았다는 기준성(미륵산성)이 있고, 중턱에는 사자암이 있으며, 아래에 동방 최대의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가 있다. 다시 서쪽 2km 지점 연동(蓮洞)에는 보물 제45호의 좌상석불(坐像石佛)이 있다.

여기에서 서북 1km 지점에는 태봉사(胎峰寺) 삼체삼불(三體三佛)이 전한다. 다시 금마에서 서쪽 1km 지점에는 보덕성지(報德城址)가 전한다.

이는 일명 오금산성(五金山城)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청동기유물(靑銅器遺物)이 발견되어 더욱 주목을 끌게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금마에서 서남쪽 4km 지점에 쌍릉

(雙陵)이 있다.

이 쌍릉은 『고려사』에 의하면 후조선(후마한)의 무강왕과 그 비의 능이라고도 하고, 일설에서는 백제의 무왕과 선화부인의 능이라고도 한다.

금마에서 서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속칭 왕궁평(王宮坪)이 널리 펼쳐져 있고 동남방 약 3km 지점에 왕궁성(王宮城)이 있으며, 성내 남쪽에는 오층석탑(五層石塔)이 있다. 이 왕궁성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이 성(城)이 마한 시대의 성이라고 전한다.

이상과 같이 금마는 도읍지로서의 궁성·성곽·왕릉·사찰 등 4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세인의 전설도 금마의 유적은 마한시대의 유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어떠한 선입견을 두지 않고 생각할 때, 금마는 삼국시대 이전 후마한의 수도라 할 수 있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도 익산을 마한의 옛 수도라 하였다. 또한 익산을 월지국(月支國)이라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삼국유사』어산불영 편에는 월지국을 북천축(北天竺)이라 하였다. 북천축이란 남천축 인도에 대응하는 말로서 익산시의 금마를 종교의 요람이라 지칭한 것이다.

2) 후마한의 무강왕이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금마(金馬)는 종교의 요람이었고 후마한의 수도였다면, 미륵사는 당연히 후마한 시대 정부차원에서 지은 가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륵사는 거대한 사찰로서 민간차원에서는 쉬이 지을 수 없는 가람이었고, 석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극히 시원형의 석탑임을 보아도 미륵사는 후마한 시대의 가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이고,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본사에서 지금부터 근 6000년 전, 태고시대부터 인도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불교(前佛敎)인 천교가 있었음을 밝혔다.

천교(天敎)는 천지인일체의 원리에 의하여 성립된 도교·불교·유교 삼교일체(三敎一體) 사상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 24, 진흥왕 37년 조의 최치원난랑비서에도 도·불·유 삼교일체의 실내포함삼교(實乃包含三敎)한 종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천교가 전불교(前佛敎)이며 익산의 미륵사(彌勒寺)인 것이다.

미륵사의 삼원삼탑(三院三塔)은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한 것이며, 도교·불교·유교 3교의 교당을 지칭한 것이다.

만주에 가면 한 울타리에 도교법당과 불교법당 그리고 유교법당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익산 금마의 미륵사지는 천교의 상징이며, 후마한의 무강왕 기준과 왕후 선화부인이 창건한 절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전라북도 익산군 불우(佛宇)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미륵사(彌勒寺)는 용화산(미륵산)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무강왕(武康王)이 인심을 얻어 마한국(馬韓國)을 세우고 하루는 선화부인(善花(化)夫人)과 더불어 사자사(獅子寺)에 행하고자 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세 미륵불이 연못 속에서 나왔다.

부인이 임금께 아뢰어 이곳에 절을 지을 것을 원하였다. 임금이 허락하고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가서 못을 메울 방법을 물었더니 법사가 신력(神力)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으로 못을 메웠다.

이에 불전을 창건하고 또 세 미륵상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도와주었다. 석탑(石塔)이 있는

데 극대하여 높이가 여러 길이나 되니 동방의 석탑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은 전설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설은 그 민족의 신빙성을 나타낸다. 과거의 우리 민족은 글을 써도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마치 명예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명예를 바라는 것은 진실하게 생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진실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전설이라 하여도 우리 민족의 경우 거기에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수 백 번에 달하는 외침을 받음으로써 사서(史書)가 모두 멸실되었고 한이 맺힌 민족이다.

이를 생각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잘 연구하고 음미하면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증언이라 할 수 있고, 훌륭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금익은 자신의 저서 『연려실기술』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전제하고, 무강왕은 (후)마한의 기준(奇準)임을 밝히고, 남으로 옮긴 것은 한(漢)나라 혜제(惠帝) 정미(丁未)년이고, 신라 진평왕의 즉위는 진(陳)나라 선제(宣帝) 대건(大建) 기해년이니, 신라의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무강왕의 역사를 도왔다 함은 허황하다고 하였다.

이는 이금익 역시 삼국시대 이전 후마한의 무강왕과 선화부인이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삼국지(三國志)』를 보면, 마한 54국 가운데 백제(伯濟, 伯濟)가 있었고, 『삼국유사』에도 “부여군(扶餘郡)은 전백제(前百濟)의 왕도(王都)”라 하였다. 『삼국사기』지리지(4)에 <후한서>를 인용하여 “三韓이 대개 78개국(國)인데 百濟는 그 중의 한 나라이다”라고 하였다.

이홍직의 『국사대사전』을 보면, 위지(魏志) 한전(韓傳)에 의하여 “馬韓은 50여 小國으로 성립되고, 충청·전라 양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그중 백제(伯濟)가 핵심을 이루고 있던 중 4세기 중엽에 백제왕국(百濟王國)이 성립되었다”라고 하였다.

백제에 전백제(前百濟)가 있었고, 후백제(後百濟)가 있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원년 서두에 “백성들이 즐겁게 따르므로 국호를 백제(百濟)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의 백제는 후마한의 백제를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환단고기』삼성기전(상)을 보면 부여시대에도 신라(新羅)라는 이름이 나온다.

신라에도 전신라(前新羅)가 있었고 후신라(後新羅)가 있었다는 것이다. 왕건(王建)이 세운 고려는 고구려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朝鮮)은 고조선에서 나왔다고 한다. 현재의 한국(韓國)은 삼한(三韓)의 한(韓)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이 고구려·백제·신라·고려·근세조선·한국 역시 옛 이름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에서 발견된 舍利奉安記의 <百濟王后佐平>의 百濟는 馬韓의 百濟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미륵사는 무강왕(武康王)과 선화부인(善花夫人)이 백제(伯濟)를 일으키면서 창건되었다면, 석탑은 백제 왕국으로 성장한 후, 세운 석탑이라 할 수 있다.

<264호에 계속>

승수국무총리 예방, 환담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 등 논의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12월 9일 승수(전)국무총리(사진 우측)를 예방하고 무강왕릉 수호보전 대책 등 종사 현안과 발전을 위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특히 무강왕릉 수호보전 대책으로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상대로 시위와 집회 대응보다는 저명한 사학자를 선임해서 학술적인 연구조사 위탁계약을 통해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논리로 대응하

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자문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갑수명예회장과 기호고문, 길학회장, 상완부총장과의 간담회 시에도 사학계의 연구조사 위탁용역을 통해 학술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자문을 받은바 있어 추태회장은 지난 12월 이사회를 통해 사학자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 예방, 환담

기성전 관리 및 지원에 감사와 지속적인 성원 당부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12월 10일 홍성열 증평군수(사진 좌측)를 예방하고 2012년 증평군 향토문화 2호인 기성전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갑수명예회장의 정부 지원금 지원으로 재건축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석가래가 무너졌지만

재정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5천만원의 증평군 재정지원금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에 감사함을 전하고 향후로도 향토문화재 관리에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청주한씨 인명부 발간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 중앙종친회 사업계획에 의거 2020년도에 종친 인명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 약식이력서 (종파문중 및 세수 표기) 및 반명합판 사진 1매
 - 종파문중 및 지역종친회별로 게재 (조직단위별로 홍보, 취합)
 - 게재를 희망하는 전 종원을 대상으로 함
 -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임
 - 기타사항은 중앙종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20-6370)

2020년 1월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정혜공(諱泳, 9世)부군 기해년 세향 봉행



세향봉행 후 임원진과 기념촬영

정혜공과종중은 지난 10월 29일 추태중앙회장(조현관, 사진 중앙) 및 임원과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에 위치한 증중묘역에서 정혜공부군의 기해년 세향을 봉행하고 임원진과 함께 증중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정혜공(正惠公, 1275~1336)부군은 충숙왕조(忠肅王朝)와 원(元)의 문신으로 문혜공(휘 康)의 손자이며, 제학공(휘 謝奇)의 아들로 자(字)는 정보(貞甫)이다. 아버지 제학공이 풀루계(禿魯花: 불모)로서 가족을 거느리고 원나라에서 살았으므로, 어려서부터 원나라 황제가 있는 곳

에서 자라 일찍부터 원나라의 인종(仁宗)을 섬겼고, 벼슬은 하남부총관(河南府總管)에 이르렀다. 일찍이 충숙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성심으로 충숙왕을 시종하여 왕위를 폐하려는 음모를 저지하였다. 이에 왕이 귀국하자 그 공을 잊지 못하여 2등 공신에 책록하고 검교판서(檢校判書)에 배(拜)하였으며 부친은 한림직학사 고양현후(翰林直學士高陽縣侯), 조부는 첨태상예의원사 고양현백(僉太常禮儀院事高陽縣伯)을 추증하였다. 시호는 정혜(正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질환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을 것과 외출 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호흡기 질환의 사람에게서 속히 멀어져야 하며 귀가 후에는 외출시의 복장을 벗어 세탁하여야 한다.

특히 감염지역인 중국의 우한시와 후베이성 일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며, 현지

를 방문해야 할 경우 가금류를 포함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험지역인 중국 우한시 지역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 후 감기증세가 있을 때에는 외출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중국 여행 이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 손바닥, 손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 동물 접촉 금지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